

공공기관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광주·전남 제품 구매 실적 '한 자릿수'...전국 30%대와 대조적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구매...창업기업 판로 확대 쉬워질 듯

광주·전남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비율이 매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창업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7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의 7년 이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구매 건수는 9946건, 구매 금액은 1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품·서비스 구매 건수와 비교한 창업기업 구매 건수는 7.4% 정도에 해당했다. 금액에 따지면 전체 구매액의 7.8%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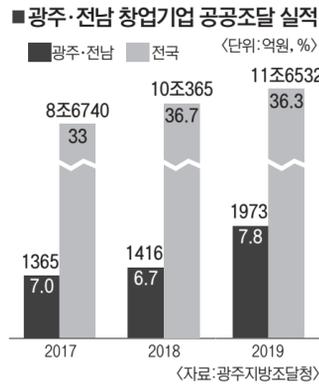
실적(금액)은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7년 창업기업의 지역 공공기관 점유율은 7.0%(1365억원)에서 2018년 6.7%(1416억원), 2019년 7.8%(1973억원)으로 7% 안팎을 맴돌고 있다.

이는 전국 창업기업 점유율이 2017년 33.0%(8조6740억원)→2018년 36.7%(10조365억원)→2019년 36.3%(11조6532억원)를 보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



난 달 31일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최소 구매 비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

관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창업기업 제품 구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 목표를 정해 그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조원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구매 규모가 이번 제도 도입으로 9조~1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박상철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완성품 업체는 적을 수밖에 없다"며 "광주조달청은 올 한 해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와 유관기관, 대학과 손잡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토종·공공 배달앱의 필요성과 숙제

최근 국내 배달앱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새롭게 내놓은 과금방식이 실질적으로는 과도한 요금 인상방식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 위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점으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적으로 거세져 해당 업체의 대표가 다시 완화된 과금방식을 선보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상황을 지켜보노라니 작년 말에 모 독립기업이 국내 배달앱 순위 1~3위 업체를 모조리 인수해 시장점유율을 98.7%로 끌어올리며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배달앱 시장을 석권해버렸을 때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경쟁업체가 있어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도 좋아지고 비용도 낮아지는데 독과점 체제는 견제가 불가능한 슈퍼기업을 탄생시켜 서비스 품질 하락과 비용 상승을 필연코 동반시킨다. 이 당연한 논리를 이번 배달앱 요금인상 사태를 통해 우리 절실히 느끼게 됐다. 문제는 외국계 회사에 국내 배달앱 시장이 거의 통째로 넘어간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토종 배달앱이나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을 절감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한 숙제가 남는다.

토종 배달앱은 지금도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아직은 인지도와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낮고 자본과 운영시스템의 경쟁력이 열세라는 점이 문제다. 최근 들어서 충성도 높은 두터운 고객층과 자본까지 갖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속속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향후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도와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물론 기존 1~3위 업체들이 단단하게 선점한 시장이기에 빠른 속도로 시장이 재편되기에는 매우 버거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이번 요금인상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종 배달앱을 이용해주는 의식의 전환이 뒷받침 된다면 경쟁력을 갖춘 토종 배달앱 업체들에게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공 배달앱의 경우에는 개발은 쉬워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특히 지자체들이 하나의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서 협업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브랜드 파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경쟁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지자체가 기존 배달앱 수준으로 개발한 배달앱에 다른 지자체들이 참여해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별 관리와 운영권한을 공유한 후 배달앱 관리 및 영업 전문 인력들을 각각 고용해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며 공동마케팅을 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이 갖춰질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용률의 확대를 시민의식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없는 최소한의 정액제형 유료화 정책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영비용과 마케팅비용에 대비를 해야 한다. 물론 공공 배달앱이 출시돼 상당 수준으로 활성화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기란 쉽지 않다. 기존 배달앱 이용이 습관화된 소비자들과 당장의 매출감소가 두려워 기존 배달앱도 여전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도가 다시 재점화 돼 독과점 업체의 일방적인 독주와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나마도 요즘 핫한 유튜브 스타인 '행수'와 늘 '핫'한 정우성이 공공 배달앱의 홍보대사를 맡아준다면 어떨까?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수자원공사, 창업기업 육성 한전, 전기차 충전기 운영·고객서비스 시스템 원스톱 제공

공공부문 혁신창업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는 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3년 동안 공공부문 혁신창업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유망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사업과 자금 및 특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사는 예산 76억원을 확보해 한 해 동안 20개 기업을 선정해 1곳당 사업과 자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할 방침이다.

또 지원 전달 조직을 구성해 투자 유치와 창업교육, 제품 성능 검증, 각종 인허가 취득 등을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충전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운영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충전기 운영 및 고객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제공한다. 무인 원격 충전기 운영시스템과 ▲충전요금 결제·과금기능이 포함된 고객 관리시스템 ▲IOS, 안드로이드 앱 등이 해당한다.

충전사업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홈페이지(etc.kepco.co.kr)에 접속하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 충전소는 광주 88곳, 전남 169곳 등 3309곳이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전은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전 전기차 충전소. (한전 제공)

광주대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23곳 모집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한다

지역대학 유일 주관기관 선정

광주대학교는 오는 23일까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가할 창업기업 23곳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대는 광주지역 대학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대는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총 사업비 70억원을 확보, 선발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각 1억원의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3년 이내인 개인·법인 창업기업이다. 신청 접수는 K-스타트업(k-

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대 창업지원단 창업포털(startup.gwangju.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대는 지난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뒤 '호남지역 초기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대학 내 창업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완석 광주대 창업지원단장은 "광주대만의 우수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며 "창업 중심 교육대학인 광주대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20개 기업 최대 155억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기업 발굴이 본격 시작되면서 정부는 올해는 2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는 20개 기업으로 시작해 5년간 10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바이오,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135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기업이 해당된다.

1~2차 평가를 거쳐 뽑힌 후보기업 60곳은 약 3개월 동안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육·멘토링을 받는다.

교육에는 효성과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 등 대기업과 로레알, 녹십자, 이니스프리 등도 참여한다.

최종 선정된 20개사 기업에는 사업고도화 지원자금 2억원과 연구개발(R&D) 지원 등 총 155억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예비 또는 창업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오는 27일까지 ▲대기업 등의 수요 기술과제 ▲자율형 과제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